

보성군-베트남 박리에우성, 농어업 분야 ‘맞손’

LOCAL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부위원장 등 대표단 초청...계절근로자 송출 협의
첫 공식 교류...농·어업 인력·문화교류 확대 기대

보성군과 베트남 박리에우성이 계절근로자 송출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위해 베트남 박리에우성 인민위원회 후인 지 응웬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7명을 초청해 교류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회는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확대, 보성군과 박리에우성 간 첫 공식 교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 14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베

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라오스 등 송출국과의 MOU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가 수요에 맞춘 인력 배치와 함께 인권 중심의 근로 환경 조성 및 관리 시스템 강화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교류를 통해 송출국 다변화, 계절근로자 수급 안정화, 글로벌 농어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향후 두 지역 간 실무 교류, 현지 교육 협력, 문화 교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후속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에는 베



보성군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위해 베트남 박리에우성 인민위원회 후인 지 응웬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7명을 초청해 교류를 진행했다.

남 출신 근로자가 가장 많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인권을 최우선으로, 외국인 근로자께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일시적 인력 교류를 넘어 보성과 박리에우성 간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나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활성화

335곳 급식비 7억 지원...“농업인 복지 증진”

나주시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 공동급식을 도입해 농업인 식사 해결과 마을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 일손이 달려 끼니를 거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농업인을 위해 마을 여건에 따라 자체 급식 또는 도시락 배달 등 급식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마을공동급식을 신청한 335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급식비용을 지원한다.

당초 올해 사업량은 마을 251곳이었으

나 신청이 폭증하면서 마을 간 형평성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을 신청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비 7억3000만원을 투입해 15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농번기 중 연간 25일 이내 공동급식 비용을 지원한다. 자체 공동급식을 신청한 마을 177곳에 부식비와 도우미 인건비를, 나머지 마을 158곳에 도시락·반찬 배달 비용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자체공동급식의 경우 연간 지원 일수

(24일)를 기준으로 급식 인원예 따라 마을 한 곳에 최대 232만8000원을 지원한다.

도시락 배달은 연간 19일을 지원하는 대신 지난해부터 끼니 당 도시락 단가를 5500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 인원예 따라 마을 한 곳에 최대 209만 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올해 마을공동급식은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신청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분주한 영농철 일손을 덜면서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에게 든든한 한 끼를 챙기는 마을 공동급식이 마을 화합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순천, 전문건설업체 법률위반 예방

업체 540곳에 안내문 발송

순천시는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운영과 건설업 발전을 위해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은 고불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바쁜 현장 업무로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의 처분을 받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실한 업체 발전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유지 등이 있으며, 업체들이 사전

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불이익의 예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건설업체 540여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법무사 46개소에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내를 진행했다. 또한 배너를 제작해 법원과 세무서에 비치했다.

앞으로 리플릿 등을 제작해 홍보하고, 신규 등록을 위한 업체 방문 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함평, 남도 숙박할인 이벤트

11월까지...1일 최대 4만원

함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전남도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관광객이 전남관광플랫폼(JNTOUR) 앱에 등록된 함평군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숙박 요금을 차등 할인해 준다.

할인 혜택은 1박 기준 10만원 이상 숙박 시 4만원, 7만원 이상 3만원, 5만원 이상 2만원이 적용되며, 전남 사람에(愛) 서포터즈 가입 시 1만원이 추가 할인된다. 이용은 월 1회, 최대 3박(연박)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은 이벤트를 계기로 지역 숙박업소와 연계한 관광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군수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함평나비대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많은 관광객이 이번 숙박할인 이벤트로 함평을 찾고, 함평에서의 특별한 여행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장흥,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

사육 부담 완화·유기견 방지

장흥군은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과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최근 원하지 않는 번식 등으로 유기견들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반려인들의 사육 부담을 줄이고 잠정적인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고자 반려견들의 중성화 수술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5개월령 이상 개다.

암컷 40만원, 수컷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희망자의 경우 대상자 선정을 통해 내장형 동물 등록비도 함께 지원한다.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 포획 후 중성화 수술을 하고 회복 후 재방사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 책임과 안전 의식에 힘써야 한다”며 “모든 반려동물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역 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주요 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순호 구례군수, 주요 사업장 현장살펴
주민 의견 반영...실효성 있는 행정 추진

구례군은 지역 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주요 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주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장별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화엄사지구 환경개선과 지초봉 산악자전거 코스 조성 등 관광자원화 사업, 농촌유학타운·청년하우스 조성 등 인구 활력 사업,

계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사업, 서시천 문화체육공간 조성, 봉성근린공원 종합정비사업 등 주민 편의시설 정비 등 지역 발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포함됐다.

김순호 군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현장 중심의 꼼꼼한 점검과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전창제 기자 dong-eah@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국내 최초 특허
한국인 유래 특허 균주 함유

VHCME+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문의전화 1588-8529

제조원 엔피케이(주) | 유통판매원 비타민하우스(주)